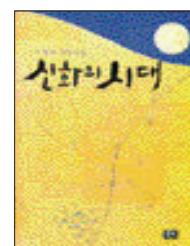


북

고향으로 돌아간 이청준 마지막 장편

신화의 시대

이청준 지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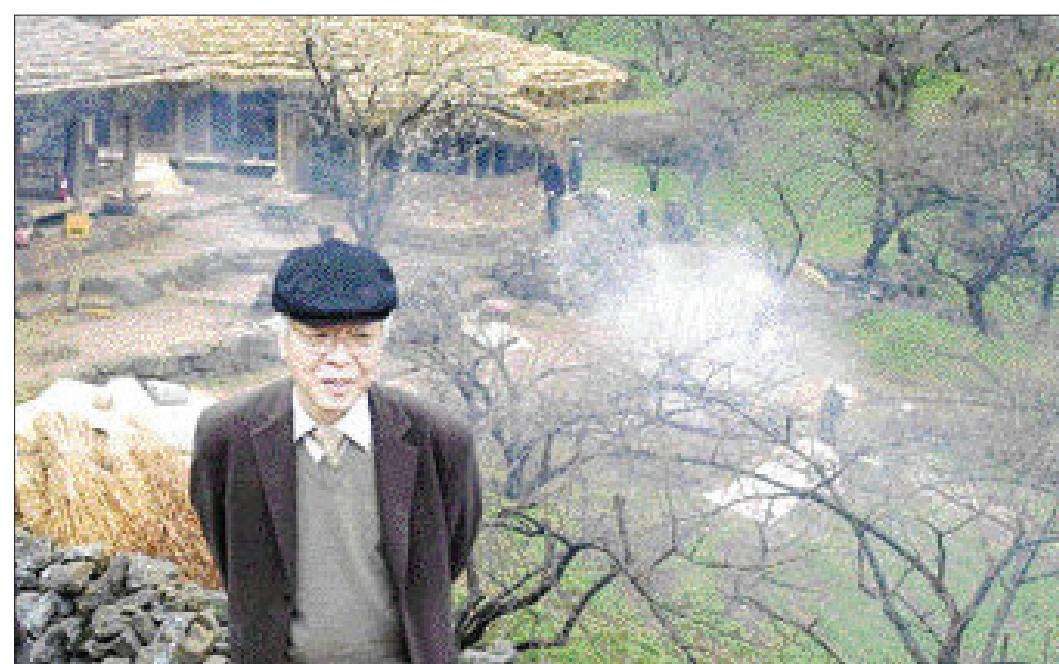
천국으로 간 이청준은 이제
학을 찾았을까?

지난 7월 폐암으로 타계한
소설가 이청준(1939~2008)
의 마지막 장편소설 '신화의
시대'가 드디어 세상으로 나
왔다. 이 소설은 생전에 '신화
소설'이라 부르며 애착을 보였던 작품으로 고인이
편집자문위원을 맡고 있었던 계간지 '본질과 현상'
에 지난 2006년 겨울호부터 2007년 가을호까지 총 4
회에 걸쳐 연재했던 것을 새롭게 단행본으로 펴낸
것이다.

소설은 '서편제' '당신들의 천국' '죽제' 등 40여년 동
안 술한 작품을 통해 인간의 의지와 지성, 폭력의 시
대에 대한 비판적 성찰 등을 보여줬던 고인이 10년에
걸쳐 완간할 계획을 세웠던 작품이다.

애초 3부작 장편 소설로 계획됐지만 원고가 완성
된 것은 그 중 1부인 '신화의 시대'. 소설은 작가의 고
향이기도 한 장흥군 진목 마을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. '남돌'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던 아버
지, 폐결핵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큰 형 등 소설을 통
해 당시 진목리의 사람들을 복원, 자전적인 요소가
작품 속에 전하게 스며있다.

책은 모두 석 장으로 구성됐다. 제1장 '산바위골'
에서는 1910년대 말 작가의 고향 마을에 흘러
들어온 떠돌이 여자 '자두리'의 이야기를 들려준다.
2장 '역마살 가게'에서는 작가의 할아버지로 침작되
는 이인영 집안의 내력을 살피고 3장 '외동댁과 약산
댁'에서는 작가의 어머니로 추측되는 외동댁과, 향
후 작품의 주인공으로 사회주의 혁명가로 파란만장



고 이청준 선생은 많은 작품을 고향인 장흥군 진목마을을 배경으로 집필했다. 지난 2006년 영화 '천년학'
고시를 지내기 위해 고향을 방문했던 이청준 선생의 모습. <광주일보 자료사진>

한 삶을 살게 될 태산의 출생과 성장과정, 출향에 이
르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.

소설은 고향 마을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'자두리'라는 여성이나 나타나는 것으로 시작된다. 정신이 온
전치 못한 자두리가 동네 남정네 여섯 명과 큰 산이
리는 천관산에 다녀온 후 누구의 씨인지 모르는 아
이를 갖게 된다. 그 아이가 바로 훗날 비범한 인물이
될 태산이다.

이청준 평생 작업중인 문학분야가 이윤옥씨에 따
르면 2부에서는 사회주의자 태산과 가까운 이웃에
서 태어난 남돌의 아들, 즉 이청준의 큰 형이 모델이
된 중운의 삶이 대비되며 전개된다. 특히 정치가 기
질의 청년 태산은 사회학적 상상력을, 예술가적 기
질의 청년 중운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가진 상징적인

인물로 묘사된다. 이어 구상만 됐던 3부에서는 작가
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, 태산과 중운이 상징하는
삶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예술가의 길을 선택하는
과정을 그릴 예정이었다고 한다.

작가는 생의 마지막 작품을 사랑했던 고향에서 출
발해 자신과 자신의 가계 이야기를 1910년대부터 현
대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 통해 담아내려 했던 것 같
다. 또 소설의 주제도 개인, 역사와 사회를 단순히 조
망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넘어서서 신화의 세계까
지 광활하게 확장하는 듯하다.

한편 표지 그림은 고인과 동향이면서 예술적 교분
을 쌓았던 김선우 중앙대 한국학과 교수가 그렸다.
<물레·1만1천원>

/이은미기자 emlee@kwangju.co.kr

'진정한 변화'

미국의 위기 극복법



'진정한 변화'는 미국 연방하원 의장을 지낸 뉴트 갱리치가 이제는 미국이 변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책이다.

저자는 미국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호에 그치는 변화가 아닌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교육정책과 이민정책, 사회보장제도, 의료체계 등 미국 사회에 만연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또 이런 변화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 더 풍요로운 미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.

<지상파·1만9천500원>
/이은미기자 emlee@kwangju.co.kr

유럽 도시로 떠나는 철학 여행

철학, 도시를 디자인하다 1·2

정재영 지음



소통(疏通). 올해 우리 사회
전반에 던져진 화두다. 대통령
은 청와대에서, 국민은 거리에
서 촛불을 들고 '소통'을 외쳤다.
하지만 '뜻이 서로 통하여
오해가 없다'는 진정한 소통에
는 이르지 못했다. 오히려 가
진자와 못 가진자, 노동자와 사용자, 정규직과 비정
규직 등 계층 갈등만 자극했다.

철학 여행기인 '철학, 도시를 디자인하다 1, 2'는
이 시대의 당면 과제 가운데 하나인 소통이 철학에
서도 절실하다는 메시지로 시작한다. 영국 위릭대에

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 정재영씨는 근대의
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진 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
를 찾는다. 20세기 전반에 등장한 비엔나 학파의 '논
리실증주의'가 여행의 출발점이다. '비엔나 서클'로
불리는 이 학파는 '모든 참된 지식은 경험에서 비롯
된다'는 경험주의의 논리분석을 결합해 세상의 수수
께끼를 풀려고 했다. 그러나 비엔나 서클이 선언한
과학적 세계관은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, 과학
적으로도 검증할 수 없는 모든 지식의 출입을 원천
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. 상식을 절대
화하면서 스스로 벽을 쌓은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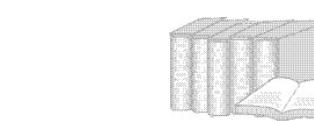
하여 저자가 찾은 곳은 '포스트 모더니즘'을 넣은
68운동의 진원지 프랑스 파리다. 비엔나가 과학적
경험을 절대화하는 근대의 심장이라면, 파리는 상대
를 용인하고 소수의 권리를 존중하는 포스트 모더니
즘 세계관의 발원지다. 이 세계관은 서로 다른 차
양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라본다. 절대주의가 아니고

상대주의다.

그리고 저자는 '과학적 세계관'과 '포스트모더니
즘 세계관'이 그린 그림이 교차하는 오늘의 세계로
독자를 이끈다. 놀라운 속도로 하나의 지구촌이 된
세계, 그러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며 갈등하는 세
계다.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충돌하는 '리얼리즘'
세상이다.

둘 중 무엇이 옳은 것인가? 답을 찾기 위해 근대
의 시작을 알린 '르네상스 철학'(이탈리아 피렌체)
을 들려보고, '근대 합리주의의 철학'(네덜란드 암스테
르담)도 기우거린다. 근대 경험주의의 철학에 빛나는
영국 에든버러도 방문한다. 이 과정에서 데카르트,
스피노자, 루크, 흄, 애덤 스미스, 뉴턴이 등장한다.
유럽 도시 12곳을 넘나들며 시대별 철학의 의미를
되새긴다. 그러나 답 찾기는 독자의 끝으로 미룬다.
방법만 귀띔할 뿐이다. <풀빛 각권 1만3천원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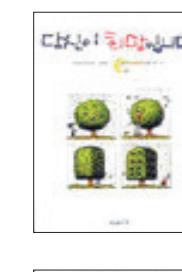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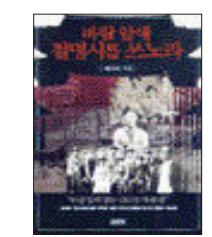
/김주정기자 jjnews@kwangju.co.kr



새책

▲조선출판주식회사=국립전주박물관 학예
연구관인 이재정이 조선시대 통치이념을 실현하는
수단으로서 책을 살폈다. '삼강행실도'를 비롯
한 다양한 사례들을 거론하며 조선 국왕들의 책
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집중 조명했다.

<안티쿠스·1만7천원>



상무지구 518공원앞 062)385-2800, 011-607-1235



생촌동 상무지구 518공원부근 중심상권도로변 3층건물
대240㎡(72.6) 건340㎡(103) 수입통나무 레스토랑

추천업종 : 패밀리레스토랑, 대형치킨호프전문점 최적합
매매가 : 5억7천만원(율2억7천만포함), 현금매수액3억



**상무지구
매물구함**

건물·토지·상가·임대·점포매매